

김홍빈 한국 로체원정대장이 전하는 네팔 대지진 순간

히말라야 등반 중 눈사태 '아찔' 타국 산악인들 1km 밖 날아가 영망된 베이스캠프서 닷새 고립



각 국 등반대와 스텝들이 있었다. 이 가운데 한국인 원정대도 로체 원정대를 포함해 3팀이 있었지만, 모두 무사했다.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의 피해가 컸던 이유에 대해서는 "로체 등반대와 함께 베이스캠프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다 등반 시즌이 시작되면서 많은 산악인들이 몰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 산악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대낮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면서 "만약 밤에 캠프에서 산악인들이 모두 자고 있는 사이에 발생했다면 더 큰 인명피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정대는 큰 피해가 없어 하룻밤을 베이스캠프에서 버티다 다시 원정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여진이 이어지자 소식을 듣고 제2의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곧바로 하산을 결정했다.

원정대는 텐트 등 장비는 캠프에 두고 달랑 짐낭만 가지고 맨몸으로 고락셀 롯지로 하산을 시작했다.

먼 거리였지만 고소적응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2시간만에 고락셀 롯지로 도착할 수 있었다. 제대로 된 옷가지도 없이 추위와 싸우며 고락셀에서 3일을 머문 원정대는 이후 걸어서 로부체(4930m)와 페르체(4243m)를 거쳐 헬기와 비행기를 타고 카트만두로 귀환했다.

김 대장은 이 과정에서 "한국인 부상자 소식이 전해지고 히말라야에 고립된 국내 산악인들의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지만 원정대는 외교부나 주네팔 대사관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일부 대원들은 하산 뒤 컨디션이 좋지 않아 지난 4일 귀국했고, 김 대장은 남은 대원들과 베이스캠프 장비를 찾아 오는 15일 귀국할 계획이다.

김홍빈 대장은 이번 로체원정대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내려온 데다 당분간 히말라야 도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 내심 아쉬운 듯했다. 김 대장은 로체를 오르지 못한 대신 올해 파키스탄 브로드 피크(8047m) 등반을 준비할 계획이다. /최권필기자 cki@kwangju.co.kr

"광주에서 기도해주신 분들이 많은 탓에 저희 대원들 모두 무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팔 대지진으로 히말라야에 고립됐다가 5일 만인 지난달 30일 대원들과 무사히 카트만두로 돌아온 '2015 한국 로체 원정대' 김홍빈 대장을 광주일보 취재팀이 8일 카트만두 시내에서 만났다.

검게 그을린 피부에 건강할 모습으로 만난 김홍빈 대장은 우선 무사귀환을 응원해준 광주시민들과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로체 원정대는 해발 4370m에 위치한 에베레스트·로체 베이스캠프에서 대지진을 만났다.

반경 1.5km 넓이의 베이스캠프 사이트에서 위쪽에 자리를 잡고 점심식사를 준비하던 중 거대한 눈사태를 만난 것이다. 김 대장은 당시 지진은 생각도 못했고 단지 눈사태가 발생했다고만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우리 원정대가 자리한 위치에서 500m 밖에 있던 다른 국가 산악인들과 텐트·장비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눈사태에 휩쓸려 1km 이상 날아가는 것을 보는데 순간 아찔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눈 사태로 베이스캠프는 속대밭이 됐고, 중국인 원정팀 등 18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베이스캠프에는 2000여명의

광주 軍 공항 이전 하반기 타당성 평가

국방부, 수원 군공항 평가 내달초 발표...광주·대구 순차 진행

광주, 2025년까지 군+민간 묶어 이천후 '솔마루 시티' 조성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광주 등 도심 내 군공항이 있는 자치단체들로부터 이전 건의서를 제출받은 이후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국방부가 이번 달부터 수원 군공항을 시작으로 이전 건의서 타당성 평가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호남선KTX 개통으로 광주공항의 이용객이 많이 감소함에 따라 '군공항과 민간공항'이전을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8일 광교테크노밸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 설명회'를 열고 "5월 중으로 수원시가 지난해 3월 제출한 수원 군비행장 이전 건의서에 대한 평가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는 65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맡게 되며, 평가 결과는 6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 '적정'일 경우 수원기지는 이전 대상 기지가 돼 앞으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등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평가위원회는 '이전건이서 평가후행'에 따라 1000점 만점 기준으로 평점 800점 이상이면 '적정'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적정' 결정이 내려지면 공군은 올 하반기 내에 2~3개 예비이전 후보지를 국방부에 추천하고 국방부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광주와 대구 군공항도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한 광주와 대구시를 비롯한 경기도 및 경기 남부권 10개 시·군, 공군본부, 국방부, 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 2013년 10월부터 시행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원시(2014년 3월 제출), 대구시(2014년 5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 일정

시기	이전사업 추진 내용
2013년 10월 6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2014년 9월 2일/9월 25일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 수렴
2014년 9월 29일	광주 군공항 이전 방안 연구용역 완료
2014년 10월 13일	광주 군공항 이전 건의서 제출
2014년 10월~2015년	국방부, 이전 건의서 평가
2015년~2017년	예비 이전 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 단계
2017~2025년	이전사업 시행(~2022년) 및 종전부지개발

〈자료: 광주시 제공〉

를 제출한 광주와 대구시를 비롯한 경기도 및 경기 남부권 10개 시·군, 공군본부, 국방부, 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 2013년 10월부터 시행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원시(2014년 3월 제출), 대구시(2014년 5

월), 광주시(2014년 10월) 등이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국방부는 수원시에 이어 대구와 광주시의 광주 군비행장 이전 타당성 평가도 올 하반기 내에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가 마무리되면, 오는 2025년까지 군공항과 광주공항을 묶어 이전한 뒤 첨단산업·문화 복합단지인 기성 '솔마루시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 광주 군공항의 규모는 831만㎡이며 이전 비용은 3조5000억원이다.

광주시는 기존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 이전 비용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업비를 금융권에서 미리 차입해 개발사업을 해야 하는 만큼 사업완료 전까지 시에서 지불해야 할 이자비용 등이 상당하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특히 소음피해 등이 예상되는 군공항 이전 부지 마련도 해결과제로 꼽힌다. 광주시와 수원, 대구시는 국가에서 군공항 이전지역(면)에 대한 인센티브만큼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출신 임흥순, 베니스비엔날레 '은사자상'

여성 노동문제 다룬 영화 '위로공단'...한국작가 첫 수상

광주비엔날레 출신 임흥순(46·사진) 작가가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 본전시(국제전)에서 국내 작가로는 처음으로 '은사자상'을 받았다. <관련기사 16면>

광주비엔날레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임 작가가 아시아 여성의 노동 문제를 소재로 국내외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촬영한 영화작품 '위로공단'(95분)으로 9일(현지시간) 열린 베니스 비엔날레 시상식에서 이같이 선정됐다고 전했다.

심사위원단은 "아시아 여성들의 노동 조건과 관계된 불안정성의 본질을 섬세하게 살펴보는 영상 작품이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베니스비엔날레 국가관 전시에서 한국 작가들이 특별상은 수상한 적은 있었지만 본전시에서 초청받은 국내 작가가 은사자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베니스비엔날레 측은 그동안 은

사자상을 본전시에서 초대된 35세 이하 젊은 작가들을 대상으로 시상해 왔다. 때문에 40대 중반인 임 작가의 수상은 이번으로 평가되고 있다.

임 작가는 2002년 제 4회 광주비엔날레 '멈춤', 2004년 제 5회 광주비엔날레 '먼지 한톨 물 한방울', 2010년 제 8회 광주비엔날레 '만인보' 등 3차례 이름을 올리면서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으로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하면서 성장해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美 카치아피카스 교수 광주 명예시민 된다

5·18 등 한국 민중운동 연구

5·18 등 한국의 민중운동 연구에 천착해 온 미국의 정치사회학자 조지 카치아피카스 웰트위스공대 교수가 광주 명예시민이 된다. 1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카치아피카스 교수는 21일 광주시민의 날 행사에서 광주명예시민증을 받는다.

프랑스 68혁명에 관한 저서 '신좌파의 상상력'으로 잘 알려진 카치아피카스 교수는 아시아 각국의 민중 운동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한때 전남대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2010년에는 5·18의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로 '오월어머니상'을 받는 등 광주와 인연도 깊다.

그는 2005년 광주 출신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신은정씨와 결혼했다가 2012년 사별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출신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신은정씨와 결혼했다가 2012년 사별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검찰, 홍준표 지사 이번주 기소

윤승모와 접촉 증거 확보

성완중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성 전 회장의 금품전달 자료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과 의혹 당시 접촉한 정황을 여러 증거로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을 앞둔 2011년 6월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윤 전 부사장이 국회 의원회관을 찾았을 자리에

서 해당 금액이 담긴 소포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증거를 넉넉히 확보했다고 보고 이르면 이번 주에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강 조사 과정에서 홍 지사가 측근들의 회유 의혹에 직접 연루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되거나 성 전 회장에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다는 판단이 서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5 밝은광주인과 **빛창 공모전**

빛드는 창에 사랑을 그린다

지역민의 눈 건강을 지키는 밝은광주인과 빛창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빛창 공모전은 '빛이 드는 창에 쓰는 글'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20~30자 짧은 글을 선정해 밝은광주인과 눈모양빌딩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시민 여러분의 아름다운 글을 기다립니다.

공모일정	시상내역
접수기간 : 2015. 4. 20 ~ 5. 13	대 상 (1편) 문화상품권 30만원
발 표 일 : 2015. 5. 15(금)	최우수상 (1편) 문화상품권 20만원
접수방법	우 수 상 (2편) 문화상품권 10만원
밝은광주인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가 작 (10편) 문화상품권 3만원
www.best-lasik.co.kr	
공모주제	
사랑, 여름, 바다, 휴가 등	
문의 (062)351-9938	

밝은광주인과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처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양림지점 652-9203 서동본점 720-2828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